

# 유승민 “K스포츠 세계 주축·선수 인권 강화에 힘쓸 것”



## 문체부 장·차관과 문체위원들 만나 체육계 현안 해결 등 대화

유승민(사진)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차관을 만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인촌 장관, 장미란 차관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장·차관님이 ‘유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시원하게 말씀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유 당선인은 14일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417표를 얻어 이기흥 현 회장(379표) 등 5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이 회장의 우세가 점쳐진 선거에서 대이변을 일으키며 1위에 오른 유 당선인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도 지낸 탁구 스타 출신으로, 대한탁구협회장 등을 지냈다.

“변화”를 기치로 내건 40대 경기인 출신 회장의 등장은 이 회장 재임 시기 갈등을 빚은 문체부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유 당선인은 “장·차관님께서 ‘관계가 많이 틀어진 상황에서 체육인들의 우려가 클 텐데, 말씀하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님이 제 공약에 공감하시면서 학교체육과 지방체육 부분에 대해 특히 많이 공감하셨다. 은퇴 선수 정책에 대한 대화도 의미 있었다”면서 “저는 체육인을 존중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장·차관과의 대화에서 “체육계의 현실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가 많이 고민했다”는 유 당선인은 “제가 어떤 리더가 될지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데, 앞으로 더욱 진정성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겠다. 체육 본연의 가치가 잘 나타날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체육인 출신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중오(국민의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선배님들이 문자를 보내 주셨고, 임오경 의원의 원납과는 장시간 통화도 했다”면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문체위원님들 도움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인준받는 즉시 문체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 위원님들을 찾아뵙어 현안 관련 조언을 듣고 방안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면서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에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유 당선인은 “바흐 위원장님께서는 ‘제게 하드워커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셔서 될 수가 없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긴밀한 소통을 다짐했

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사무총장도 통화했다”면서 “다음달 하얼빈 아시안게임에 OCA 초청으로 다녀올 것 같다”고 공개했다.

IOC 위원 제도전 기대감에 대해선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아끼겠다”고 선을 그으며 “국제 관계를 이어온 것이 제 장점인 만큼 그것을 통해 K스포츠가 세계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경쟁자들도 선거 이후 연락을 통해 유 당선인을 격려했다고 한다.

유 당선인은 “이 회장님께서는 전화드렸던 특유의 진밀감 있는 구수한 화법으로 ‘잘해(잘해)’라고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유 당선인은 “고(故) 최수현 선수 아버님도 문자를 주셨다. 저도 비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려사만 때문에 잊힌 것이 아닌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면서 “IOC에서 인권 관련 위원으로도 활동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선수 인권이 강화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100회 우승 이루겠다”...영암군민속씨름단 출정식

### 신규 선수 입단식·성금 기부 등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을사년 새해 각오를 다지고 새 얼굴을 알리는 출정식을 거행했다.

영암민속씨름단은 지난 15일 영암군청에서 300여 명의 영암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 입단식 및 출정식을 치렀다.

이날 영암민속씨름단은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 ‘100회 우승’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김기태 감독이 지휘하는 영암민속씨름단은 지난 2017년 창단 이래 장사 78회, 전국체전 금메달 7회, 단체전 11회로 총 96회의 우승을 일궈냈다.

영암민속씨름단은 새 식구들과 함께 ‘100회 우승’ 달성을 합작할 전망이다.

올해 새롭게 합류한 장사는 소백급 김진우, 태백급 문현우, 한라급 이태규, 백두급 백원종이다.

오금당기 등 손기술이 장점인 김진우는 지난 2024년 중평인삼배 고등부 소장급, 춘천소양강배 제54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정상급, 제105회 전국체전 고등부 소장급 등에서 정상에 오른 유망주다.

들배지기가 특기인 문현우와 이태규는 각각 지난해 추석장사씨름대회 3위, 춘천소양강배 용사급 1위를 기록했다. 또 잡채기가 주무기인 백원종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난 15일 영암군청에서 씨름단의 새해 각오를 다지고 새 얼굴을 알리는 출정식을 진행했다. <영암군청 제공>

은 지난해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새로운 도약을 알린 영암민속씨름단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지는 ‘위드스제약 2025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로 올해 여정을 시작한다.

한편 영암민속씨름단은 이번 출정식에서 연말 연시 따뜻한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이들은 이날 지역사회 안팎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영암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씨름 괴물’ 김민재(백두급)가 장학금 1000만원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금강 간판’ 최정만(금강급)이 주특기인 잡채기로 승리할 때마다 10만원씩 적립하는 ‘사랑의잡채기’로 500만 원을 체육진흥기부금으로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체육 활성화 등에도 기여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여자골프 ‘인터내셔널 크라운’ 월드컵 신설

### 대회 조직위, 리더와 고 출전 예상

여자골프 국가 대항전인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올해부터 월드컵이 신설된다.

2025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올해 대회부터 월드컵을 구성해 각국 대표 선발 방식을 통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주관하고 한화 금융 계열사 브랜드 라이프플러스(LIFEPLUS)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2014년 창설된 여자골프 국가 대항전이다.

올해 대회는 10월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총상금 200만달러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5회째인 이 대회에는 그동안 8개 나라가 출전했다가 올해부터 7개 나라와 월드컵 출전으로 대회 진행 방식을 변경했다.

한 나라에 4명씩 선수로 구성되며 월드컵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등 4개 지역 최상위 선수 1명씩 팀을 이룬다.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월드컵 참가 선수로는 리더와 고(뉴질랜드·사진), 켈린 부티에(프랑스), 브룩 헨더슨(캐나다), 제네비엔(대만)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올해 대회에는 한국, 미국, 일본, 태국, 호주, 스웨덴, 중국이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잉글랜드와 독일, 프랑스 등이 추격 중이다.

대회에 나올 상위 7개국은 여자골프 세계랭킹 국가별 상위 4명의 순위를 합산해 정해지고, 올해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끝난 뒤 결정된다.

참가 선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이 끝난 8월 초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현재 랭킹 기준으로 한국 선수 상위 4명은 유해란, 양희영, 고진영, 신지애 순이며 김효주, 윤이나가 그 뒤를 잇는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인천에서 열린 3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실책에 발목...연패 늪 빠져

### 인천시청 상대 21-24 패...내일 SK슈가글라이더즈와 경기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이 인천시청을 상대로 패하며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다음으로 미뤘다.

광주도시공사는 15일 오후 8시 대구 계명문화대 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 인천시청과의 대결에서 21-24로 패했다.

지난 5일 부산시청을 상대로 시즌 첫승을 거둔 후 올해 두 번째 승리를 노려오던 도시공사는 지난 12일 삼척시청 상대 패배에 이어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시즌 초반 연패를 기록하게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초반부터 잦은 실책으로 인천시청에 주도권을 넘겨줬고, 공격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며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했다.

전반 초반, 광주도시공사는 인천시청 이효진과 김설희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0-2로 끌려갔다.

이후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 김금순, 서아루가 활약하며 4-4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실책이 이어지면서 4-6으로 다시 뒤처졌다.

인천시청은 이효진과 박민정의 속공 득점으로 우위를 점했고,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을 10-13으로 마무리했다.

후반전 8분에는 광주도시공사가 인천시청을 14-14로 따라잡으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인천시청의 7m 드로우를 광주도시공사 유정원 골키퍼가 연달아 막아냈고 서아루의 연속 득점이 이어졌다.

하지만 또다시 광주도시공사의 실책이 이어졌다.

틈을 놓치지 않고 득점을 이어간 인천시청에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17분 16-18, 2점차로 뒤처졌고 이후 1-2점차 싸움이 전개됐다.

광주도시공사는 끝까지 추격을 시도했지만 연이은 파울로 기회를 놓치며 경기는 21-24로 종료됐다.

광주도시공사 서아루가 7득점, 송혜수가 6득점을 기록했고, 이민지 골키퍼가 9개의 세이브를 만들어내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인천시청은 이효진 8득점, 박민정 6득점, 김설희 5득점, 이가은 골키퍼가 4개의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로 광주도시공사와 인천시청은 각각 1승 3패, 승점 2점을 기록했다.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에 따라 순위가 결정됨에 따라 도시공사가 7위로 내려앉았고, 인천시청은 6위로 올라섰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를 상대로 연패를 끊기 위한 맞대결에 나선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